

5월 넷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세종학당재단 "베트남·인니 등 4개국 현지 한국어 교원 키운다"
(p. 1-2)
(<http://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4029>)



인도네시아서 코로나로 의도치 않은 임신 40만명 전망 (p. 3)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661567>)



[단독] 포스트코로나 신남방, 바이오 연구로 재가동한다 (p. 4-5)
(<https://www.ajunews.com/view/20200521141304425>)



고영경 교수 "동남아서는 그랩-고젝과 손잡아야 살아남는다" (p. 6-10)
(<http://aseanexpress.co.kr/mobile/article.html?no=4074>)

세종학당재단 "베트남·인니 등 4개국 현지 한국어 교원 키운다"

박세연 기자 saymond@aseanexpress.co.kr 등록 2020.05.21 08:09:06



▲ 2019년 세종학당재단이 주최한 교원양성과정에서 이집트인 참가자가 모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학당재단)

대한민국 해외 한국어 보급 대표 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이하 재단)이 현지인 한국어 교원 양성에 나선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4개국에서부터 현지인을 한국어 교원으로 키우는 사업을 시작한다.

재단은 5월부터 4개국에서 총 100명의 현지인을 한국어 교원으로 양성하는 '세종학당 현지 교원 양성과정'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은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주인도한국문화원, 주터키한국문화원이 각기 주관하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5월, 터키는 6월, 인도는 8월부터 과정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원이 부족한 지역에 현지인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종학당 현지 교원 양성과정'은 국외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 관련 학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세종학당 중급 이상 수료자로 토픽 4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면 참가할 수 있다. 현지 거주 한국 국적자의 경우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현지에 적법한 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며, 현지어 구사가 가능해 현지어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할 경우에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강의를 120시간 수강한 후,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모의 수업을 하는 20시간의 실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세종학당 내에서 수습 교사로 3개월 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월 18일 시작된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의 '세종학당 현지 교원 양성과정'에는 24명 모집에 63명이 지원해 약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정종권 소장은 "한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 열기로 이어져,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도 인기 직업군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현화 이사장은 "현지 교원을 양성한다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 해당 국가 내에서 자생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이 국외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국외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재단은 또한 올해 미국거점세종학당과 주LA한국문화원을 통해 2021년 미국 내 현지 교원 양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며, 시범 운영 결과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부터 지역별로 특화한 현지 교원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서 코로나로 의도치 않은 임신 40만명 전망

KNS뉴스통신 승인 2020.05.21 08:19



[크레딧 ©AFPBBNNews=KNS뉴스통신]인도네시아 국가 가족 계획 조정청(BKKBN)은 19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의 외출 제한 영향으로 피임이나 낙태 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워 예정하지 않은 임신에 이른 여성이 40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어 베이비 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달 외출제한이 부과된 이후 작은 진료소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고 의사나 조산사도 진료하는 환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로 인해 피임약이나 피임도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하스트 왈도요 국가가족계획조정청(Hasto Wardoyo) 국장은 AFP에 "많은 사람이 긴급시 외에는 집에 있으라는 정부의 명령에 따랐다"고 전제한 뒤 "많은 사람이 피임을 긴급사태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4위의 인구 2억600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약 480만 명이 탄생하고 있지만 내년 초까지의 신생아는 당초 예상보다 42만 명 많아질 전망이다. 이 숫자는 국가가족 계획사업에 등록된 2800만명 중 10%가 피임에 실패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예상되는 출산 급증으로 어린이 발육장애가 악화되거나 모체와 유아 사망률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월드요 장관은 "만약 임신을 계획한다면 지금은 적절한 시기 아니기 때문에 피임을 중단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계획조정청에서는 직원의 호별 방문에 따라 희망자에게 자궁내피임구(IUD) 등 피임 기구를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피임기구 사용자의 95% 정도는 여성이며 콘돔을 사용하는 남성은 극소수다.

[단독] 포스트코로나 신남방, 바이오 연구로 재가동한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20-05-21 15:04

경인사연, 6월 중순 인니 산업부 바이오 공동연구 화상 컨퍼런스
성경륜 이사장, "국수주의 뛰어넘어 포용국가 연합 비전으로 위기 극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멈춰선 신남방정책이 K-방역체제를 기초로 둔 바이오 연구로 재가동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산업혁신 방향 역시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 과제인 바이오산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다음 달 중순께 인도네시아 산업부 연구진과 함께 '메이킹 인더스트리 4.0' 구현을 위한 화상 콘퍼런스를 연다. 애초 지난 4월 대규모 오프라인 콘퍼런스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다가 이번에 화상 콘퍼런스로 대체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연구는 2018년 9월 한-인니 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내용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 7352만 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4위 수준의 최대 인구 규모다.

내수시장 규모 자체가 크다보니 국내 경제·산업의 진출과 협력으로 상호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경인사연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산업혁신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실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인도네시아 감염 확산 상태는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21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1만8496명에 달할뿐더러 현재까지 사망자는 1221명(6.6%)에 이른다.

산업 발전 등을 위한 공동연구도 필요하지만, 당장 인도네시아 국민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인사연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와의 공동연구 과제의 우선순위를 '바이오'산업으로 맞춰 잡았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검진·통신망을 통한 역학조사 등 K-방역체제의 효과가 전 세계에 알려진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도 바이오산업의 공동연구를 서둘러 국민의 안전부터 챙겨보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영역에 바이오산업이 포함된 만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공동연구를 통해 바이오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짚 수 있는 계기도 함께 찾을 예정이다.

더구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19(Covid-19) 등 바이러스는 대략 5년 주기로 확산하면서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보니 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으론 이런 국제사회와의 공동연구가 최근 들어 확대하는 국수주의·보호주의에 맞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미국·중국 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국가 간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이 달라 공동연구 성과를 수용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도 어렵다.

성경룡 경인사연 이사장은 "우선 K-방역체계의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고 해당 국가 시스템과 인재를 양성하는 등 '커패시티 빌딩(Capacity Building)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비전으로 삼은 선도 국가를 뛰어넘어 포용국가 연합체제라는 가치로 뻗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한 광범위한 공동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고영경 교수 “동남아서는 그랩-고젝과 손잡아야 살아남는다”

2020.05.25 12:14:08

고영경 선웨이대학교 교수 '인도네시아 고젝 그리고 그랩' 온라인 강의 조명 주목



그랩(Grab)과 고젝(Gojek)은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내로라하는 유니콘 기업 '슈퍼 앱'이다. 차량 호출(ride-hailing)에서 출발해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이제는 플랫폼을 보유하면서 각 분야로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동남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두 서비스는 택시 대안으로 등장해 동남아 유일한 10B 이상 기업가치 스타트업이 되었다.

아세안 시장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미래 트렌드를 소개한 '미래 성장 시장 아세안'을 펴낸 고영경 선웨이대학교 교수가 5월 19일 강의한 '인도네시아 고젝 그리고 그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강의와 페이스북으로 그가 강조한 것은 “동남아서는 그랩-고젝과 손잡아야 살아남는다”는 것. 고 교수가 조명한 유니콘 기업 그랩과 고젝에 대해 아세안익스프레스가 지상 중계해본다.

■ 전화기 10대로 시작한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중심 호출서비스

'고젝' 인도네시아 고젝(Gojek)은 오토바이 중심의 호출서비스 앱이다. 나디엠 마카림이 오토바이 기사와 이용자를 연결한 아이디어로 출발했다.

2010년 전화기 10대 출발했다. 앱이 개발된 것은 2015년이다. 예전부터 인도네시아에는 오젝이라고 '오토바이택시' 같은 게 있었다. 동네 어느 지점에 가면 오토바이가 모여 있고,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가격을 흥정해 타고 간다.

휴대폰이 생겨난 후에는 아는 오젝한테 전화해서 불러서 타고 가기도 하였다. 차가 워낙 막히고, 그리고 택시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으로 유용하다. 근데 이게 1대 1 거래이다 보니 효율성 편리성 안전성 등등에 문제가 있었다.

**Grab vs. Go-Jek:
the battle in Southeast Asia**

Grab		GOJEK
 Anthony Tan	CEO	 Nadiem Makarim
Harvard Business School	Alma mater	Harvard Business School
\$14 billion	Estimated valuation*	\$12 billion
Over 160 million (SEA 8 countries)	Number of downloads	Over 130 million (Indonesia, Vietnam, Thailand, Singap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yota •SoftBank Group •Microsoft 	Main inves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ncent •Google

*Based on current funding round ASIAN EXPRESS Latest download data

▲ 그랩 창업자 앤소니 탄과 고젝의 나디엠 마카림(오른쪽)

나디엠 마카림이 2010년에 이 오토바이 기사와 이용자들을 연결하는 회사를 차린다. 고젝의 시초다. 2010년이니까 앱 기반 서비스 이런 건 당연히 생각못한 시절이다.

사무실에 전화기를 12대를 놓고, 중계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냥 그렇게 가다가 2012년에 저 바다 건너 말레이시아에서 마이택시(MyTeki, 그랩의 모태)가 나타났다. 앱 기반으로 카카오택시랑 비슷했다. 마이택시로 택시업이었다가 투자유치 이후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그랩카로 변신했다.

고젝은 2015년에서야 앱이 만들어진다. 이걸 고젝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데이터 이용요금 등과도 관계가 있다. 그랩이 차량 기반으로 시작했다면 고젝은 계속 오토바이 중심이었다. 교통 사정도 있고 소득 수준의 차이이다.

■ 고젝, 음식배달-미용메이크업-공과금납부 등 슈퍼앱...그랩 인도네시아 상륙 '초긴장'

그랩은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출발이 차량 호출 서비스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는 오토바이-헤일링(오토바이 호출, motobike-hailing)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젝은 철저히 인도네시아 기반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 7000만 명 인구에 섬이 1만7000개가 넘는 나라다. 자기 나라서 잘하기도 바쁜데 뭐 '딴나라'를 쳐다볼 이유가 없었다.



▲ 그랩과 고젝

반면에 마이택시는 2013년 태국과 싱가포르에, 2014년 인도네시아 등지로 해외진출을 가열 차게 하면서 그랩 택시가 되고 그랩카로 진화해나갔다.

고젝은 인도네시아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한다. 물론 이제 차량 호출(car-hailing)도 시작했다. 고젝이 앱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출발은 늦었지만 고페이를 비롯해 음식배달, 미용메이크업, 공과금납부 등 지금 슈퍼앱이라고 넣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일찍이 다 끌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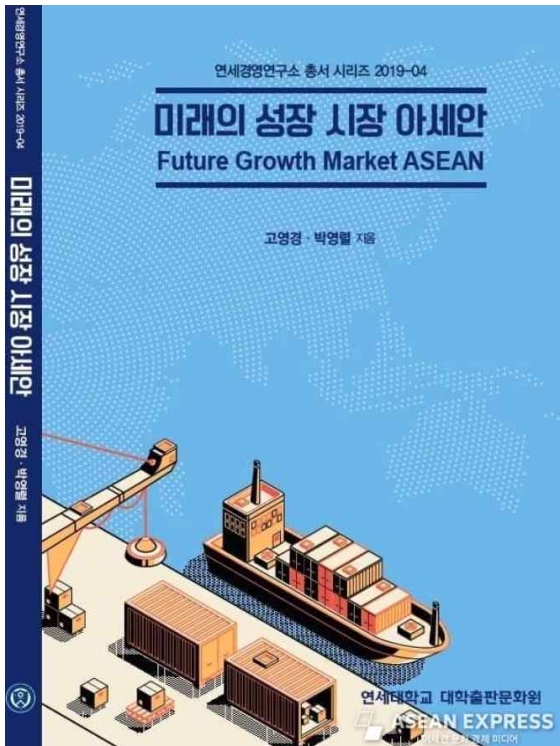
최고의 인기는 마사지사 예약이다. 그들을 부르면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온다. 인도네시아 생활 필수앱이 된 거다. 나중에 고라이프(Golife)로 별도로 만들어졌다. 실제 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차다.

두 기업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다. 과거 그랩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오토바이 요금이 차량보다 싸서 거래대금에서 놓고 보면 그랩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고젝과 그랩, 하버드 MBA 동기 앤소니 탄-후이링 탄이 창업 이젠 '라이벌 관계'

알려진 대로 고젝 창업자 나디엠 마카림과 그랩 창업자 앤소니 탄-후이링 탄은 하버드 MBA 동기다. 하지만 지금은 데면데면하는 사이라고 한다. 서로 치열한 시장의 '라이벌'임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기업의 경쟁과 발전에는 대규모 펀딩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랩은 2014년부터 글로벌 펀딩을 받기 시작한다. 처음엔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기점으로 깜짝 놀랄만한 금액들이 연이어 쏟아져 들어온다.



▲고영경 선웨이대학교 교수가 펴낸 '미래 성장 시장 아세안'

고젝은 그보다는 늦었고, 구글과 텐센트의 투자가 기폭제가 되었다. 그랩은 2018년 우버 동남아 사업권을 인수하며 동남아 최종승리자가 되었다.

우버가 나가고 그랩이 동남아 시장 전체를 좌우하게 되면서 고젝이 해외 진출을 시작한다. 지금은 베트남 태국에서 고비엣(Go-Viet), GET이라는 브랜드로 만날 수 있다.

그랩과 고젝은 차량 호출에서 출발해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이루었다. 슈퍼앱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두 기업 모두 슈퍼앱이 된 후 파이낸셜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두 회사는 페이-대출-보험-투자로 이어지는 파이낸스 부분을 강화하려는 전략도 유사하다. 우버=> 중국 텐센트(슈퍼앱)=>동남아 플랫폼+핀테크 공룡.

두 스타트업은 동남아 교통체증이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데서 시작했다. 이후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펀딩도 많이 받았고, 성장기회를 잘 포착했다. 과감했고 신속했다.

이 같은 혁신의 아이콘 그랩과 고젝의 성공은 동남아의 스타트업 붐과 활발한 투자유치의 기폭제가 되었다.

■ 코로나19 여파, IPO 쉽지 않은 상황...고젝과 그랩 합병 소문도

고영경 교수는 평소 동남아에서는 그랩이나 고젝과 함께 하거나, 그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살아남는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게임이 되어야 한다. 투자금이 쏟아져 들어와서 시장 확대는 이루어졌는데, 혁신적 모델은 어디로 간 건가고 지적했다.

유저 많고 데이터터 많다고 그냥 돈이 벌리는 게 아니다. 고젝은 지난해부터 일부 인원을 내보냈다. 고라이프의 서비스 수를 줄인 대신 고비디오와 금투자 플랫폼을 추가했다.

그랩은 고젝이 하던 이런저런 서비스들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 올려놓고 있고, 채팅 베타 버전도 내놨다. 금투자수단 말고는 그다지 눈길을 끄는 게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라이드헤일링 시장 수요 대폭 감소했다. 또한 코로나 여파가 아니라도 이래서는 그랩의 IPO(기업공개)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파이낸스 부분 분리가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한쪽에서는 고젝과 그랩의 합병소문이 새어나오기도 한다. 지난해 나디엠 마카림은 조코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그랩과 고젝은 블랙홀처럼 동남아의 인재들, 몸값 높은 사람들을 몽땅 끌어갔다. 물론 밥값을 하는 탁월한 인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 기다려 보는 중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 두 유니콘 기업도 한국의 경우처럼 카카오페이지(카카오), 네이버쇼핑(네이버)과 웹툰(카카오-네이버) 같은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의 상승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